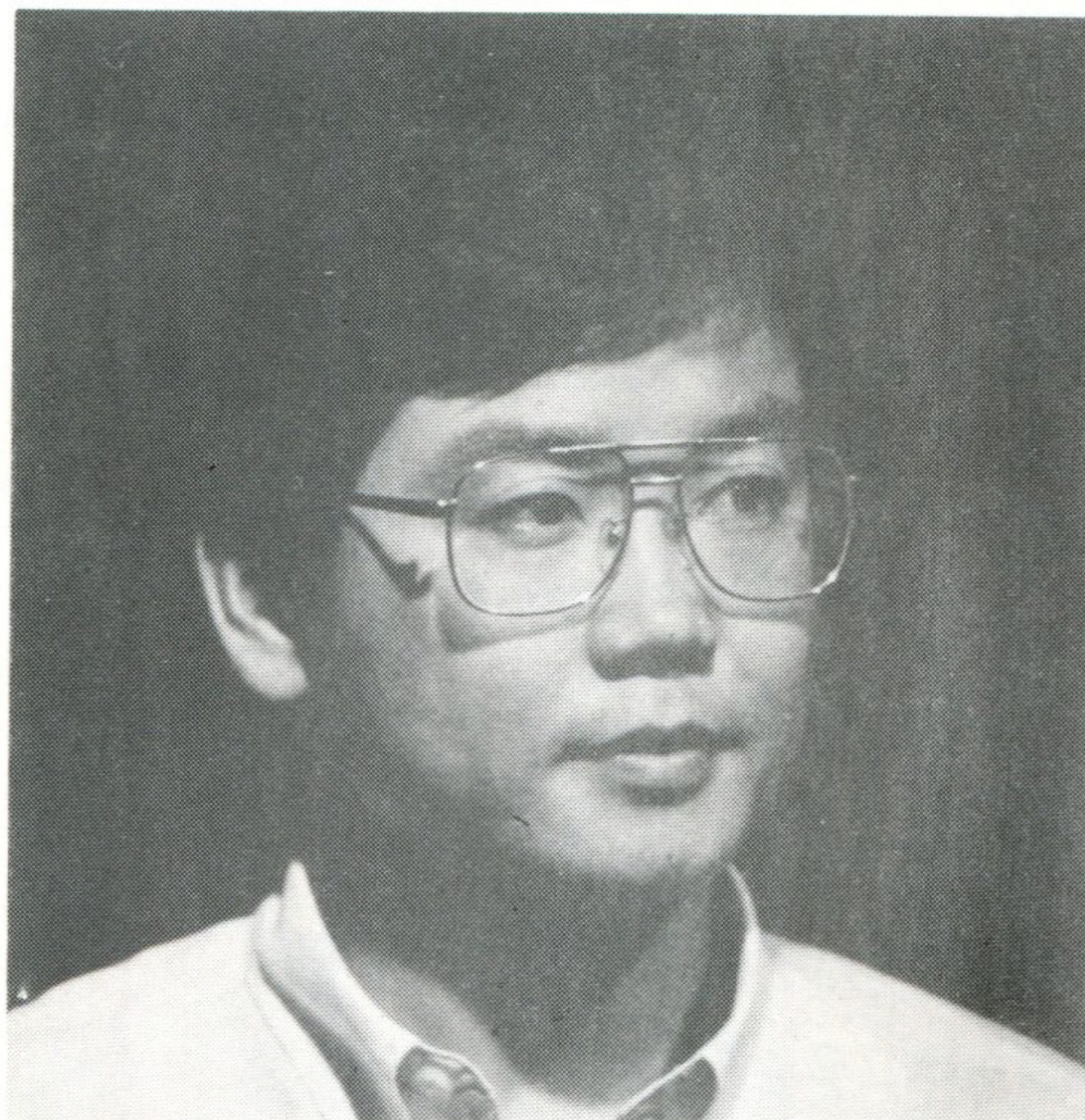


극단 **열린무대** 제4회 정기공연

산씨연대



자유 그리고 사랑



연출 이창복

‘환자에게 의술을 베푸는 것은 무의미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근거로 한 자유로운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 시대를 살다 간 한영덕이란 지식인의 항변이다. ‘자유로운 사랑’을 고집함으로써 그는 비극의 인생을 살아야 했다. 분단과 그로 인해 양분화된 이데올로기의 사슬은 한 인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무참히도 짓밟았다.

싸르트르는 그의 저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가치를 그가 속한 사회상황에 유익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지식인의 지식이나 명예는 보편적 사회이익에 봉사하지 못하고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의 한정된 계급 이익에만 부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권력과 부의 열매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지식인은 그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영덕은 그들의 열매를 나누어 갖기를 거부한다. 지식인으로서 그의 선택이 모든 인간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자유’와 ‘사랑’이었건만 분단과 이데올로기는 그 모든 것을 짓밟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바라보는 이 가을, ‘그의 매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시다.’라는 한혜자의 마지막 대사와 함께 아직도 젊은 날의 선택으로 인해, 차디찬 0.8평 속에 이데올로기의 사슬로 묶여 있는 그 시절의 젊은 지식인들을 생각해 본다.

작품에 대하여

원작 황석영



황석영의 원작 소설을 토대로 각색된 작품 '한씨연대기'는 한영덕이라는 한 개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시대적 상황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삽입된 연극이다. 말하자면 역사적 문맥 위에서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평양 김일성대학 산부인과학 교수였던 한영덕은 6·25전쟁의 발발로 대다수가 인민전선으로 동원되어 가는 와중에 평소의 정치투쟁력 및 사상성 미흡을 빌미로 평양에 그대로 남겨져 특별동 담당의사로 일하게 된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의사로서의 소명감

에 전적으로 성실했던 한영덕은 당의 지시에 개의치 않고 보다 위급한 환자들이 가득한 보통병동 진료에 전념하다가 결국 당에 의해 처형되도록 되나 확인 사살을 못한 인민군의 실수로 기적처럼 살아 난다.

이른바 1·4후퇴 때, 평양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 한영덕은 가족과 생이별을 하여 월남하게 되고, 미군 캠프 지역을 배회했다는 명목으로 첩자로 간주, 수사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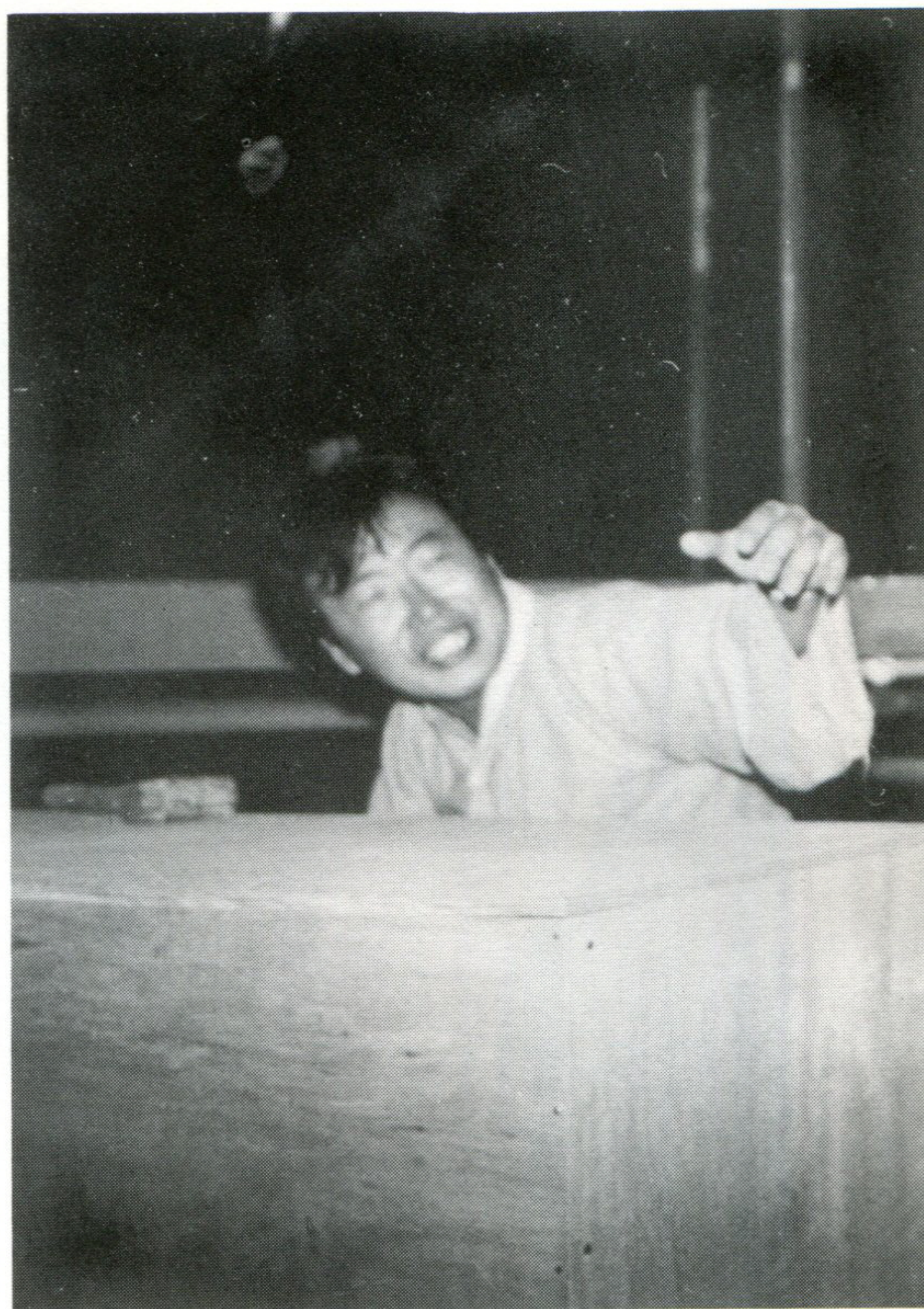
그 후, 생계를 위해 무면허의사 박가와 동업하게 되나 취체를 당한 박가가 양심을 품고 당국에 고발한 것과 남한

의 정치상황이 맞물려 한영덕은 빨갱이로 내몰리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된다.

이남에서 재회한 누이동생, 친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기불능의 상황에까지 간 한영덕은 늘그막에 시체를 염해주는 일로 떠돌다가 1972년 서울의 하늘 밑에서 삶을 마감한다.

맨 마지막, 딸아이의 독백에서처럼 '그의 매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남북분단의 과제에서 무엇이 분단의 상태를 더 고착화시키는가의 문제를 한영덕이라는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조명하려 한 본 작품은 분단상황이라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한 인물을 보게 한다는 방침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분단상황은 어디까지나 한반도내 우리의 정치 현실임은 물론이거니와 작품안에서는 한영덕 개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의미가 되살아나는 일종의 장치이다.



다큐멘터리 장면은 그 독자적 장면의 분리성에 의거하기보다는 그것과 연결고리를 이룬 한영덕의 일대기에서 스며들어 나올 때 우리들은 보다 정확히 한영덕과 만날 수 있고 한영덕의 선택이 빚어내는 사회적 상황을 자각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한영덕은 고지식하다.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서 나선 행동가도 아니다. 그는 그저 의사라는 직업에 충실했을 뿐이며 생활을 위한 어느 정도의 타협도 감수한 인물이다.

그런 그의 일생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작가가 일차적으로 가진 한영덕이라는 인물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정도만큼의 인물의 형상화에 기인하는 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분단 시대를 겪은



우리 민족의 모습이 그 깊숙이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한 성실한 인물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에 눈뜨게 됨은 물론 한영덕이라는 한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진

한 애정과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울러 6명의 배우가 극중 많은 역을 맡아 변화있게 장면을 표현하므로 관객들은 연극적 재미와 만나게 되는 기회를 또한 가질 것이다.

연출이 요구한 극 중 진실 열 두 개로 엮는 모놀로그

1. 다큐멘타리

성실한 해설의 자세와 배우 스스로 재미를 느낄 것.

동작과 동작이 연결될 때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는 기분으로 가벼운 행동을 취할 것.

2. 중앙인민병원

열성적이고 열광적인 당원이 될 것.

3. 수 술

친구지간의 우정도 보여주어야 겠고 선택의 차이로 나타나는 가치관의 대립으로 관객들이 한영덕을 접할 수 있는 장면이 되어야 할 것.

4. 심 문

원장은 악역이 아니라 그저 당의 명령에 충실한 인물로 나타나야겠고 한영덕은 자기 소신에 충실한 자세가 될 것.

5. 피 난

예측할 수 없음에 대한 불안, 가족들과의 이별, 안심시키는 가장, 이 모든 것이 바람과 추위를 느끼는 가운데서 절실할 것

6. 수 사

약간의 무료와 트럼프 놀이에의 열중과 한 곁에서의 지식인의 힘겨움이 대비될 것.

7. 낙태수술

무면허 의사와의 동업이 야기하는 갈등에 직면할 것.

8. 상 봉

월남한 친구, 형제끼리의 따뜻함과 약자함이 전체적으로 배어나올 것.

아울러 아련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9. 취 체

시대의 두 험잡꾼이 만날 것.

홍정과 으름장과 건들거림이 있을 것.

10. 다큐멘타리

정치적 난동,

국회의원이 깡패로 돌변하는 양면성에서 시대를 느끼게 할 것.

11. 면 회

내몰린 한 지식인의 실성함에서, 그 주변 사람들의 애환에서 분단의 상처를 드러낼 것.

12. 1972년 서울

딸의 담담한 독백과 관 짓고 염하는 두 노인의 대화에서 마무리의 분위기를 최대한 높일 것

분·단·상·황

전쟁에서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교전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를 알아보기가 그만큼 어려워 진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으로 제일 먼저 희생된 것도 진리가 아닌가 한다.

북한은 체제의 성격상 진리를 왜곡, 부정하는 것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고 남한에서는 비판의 자유를 찬미까지 해온 셈이지만 실제로 남한의 위정자들은 분단상황의 진리를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의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치자들의 프로파간다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뜨거운 바람과 깊은 두려움까지도 이성적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8·15는 엄격히 따져 해방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우리는 흔히 8·15 해방이라고 부르지만, 이날은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있었지만 이날을 계

기로 남에는 미군이, 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국토가 분단되고 외국이 우리민족을 지배하게 되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해방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남·북에 각각 미·소군이 진주한 것은 우리 민족의 동의를 얻고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을 패망시키고 자기 나라 정책을 집행하러 온 것이며, 미·소군은 당초부터 한민족을 해방시킨다든지 민주주의 독립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다. 미·소군이 진주하자 남에는 미국의 동조자들이 집권에 참여하고 북에는 소련의 동조자들이 집권에 참여하였으므로 한반도의 분단은 이때부터 굳어지지 시작했다.

분단에는 민족사 외적 원인도 있었지만, 분할점령에 편승하여 분단국가 만이라도 만들어서 집권하려는 민족 내적 분단책동이 크게 작용했다.

8·15후 미군진주와 더불어 미군의 지지세력이 되고 미군정의 주요한 한국인의 참여자는 일제시대에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조한 한국인이 주였으므로 8·15 후의 분단 한국의 집권층

은 주요세력이 부일 협력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친일세력을 기용한 것은 이들은 생리적으로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하므로 일제시대에는 일본통치에 협조하여 자기들의 안전을 꾀했고 미군이 진주하자 미군정에 참여하여 자기들의 안전을 기도했으나 미군정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제국주의나 8·15후의 미군정이 다같이 자본주의 체제였으므로 친일세력이 반자본주의적인 공산세력의 반대세력이 될 것을 기대한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한국은 미군정 3년간은 물론 그후 48년 정부 수립후에도 친일세력이 주도하게 되었다. 시일이 지날수록 이들은 어느덧 기득권층을 형성하였으므로 통일을 실현하여 공산세력과 공존하게 되면 친일세력인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으므로 철저한 반공을 주장하여 통일에 장애구실을 하였다.

그리하여 자유당 시절에는 북진통일론 이외의 다른 어떤 통일논의도 존재할 수 없었다. 60년대에 들어와 4·19를 거쳐 5·16 군사정권하에서도 반공을 제일로 하는 정책을 고수하였으므로 통일에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2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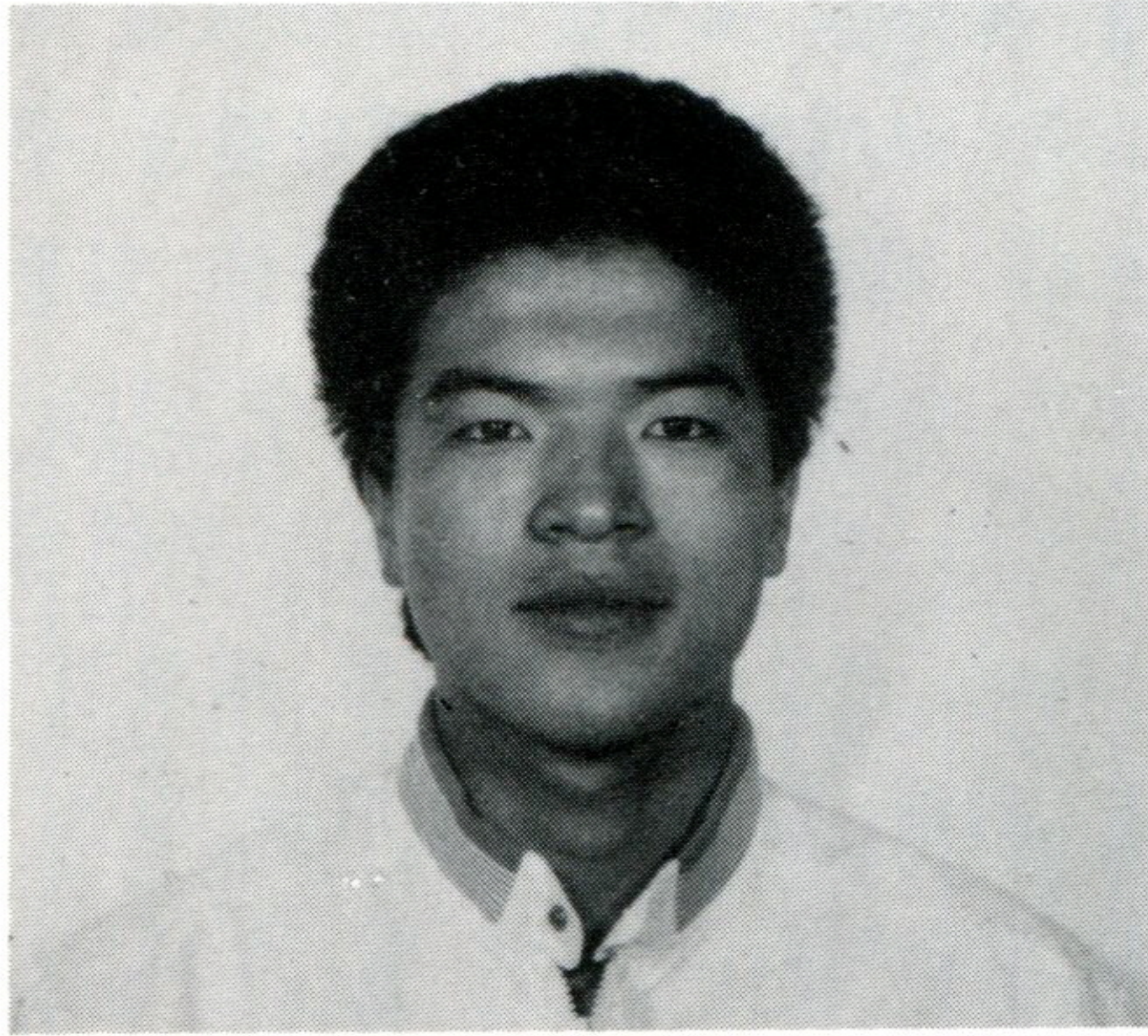
남북한 문제는 항상 유에스아이템(U.S.Item)이라고 불릴만큼 미국의 입장에 따라 변화하는데, 남북공동성명

도 그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72년 남북 7·4 공동성명에서 반공을 제일로 내세운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민족대단결을 주장했으나 지금 한국은 논리상 일종의 모순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반공을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북의 공산당을 상대로 평화적 통일을 위해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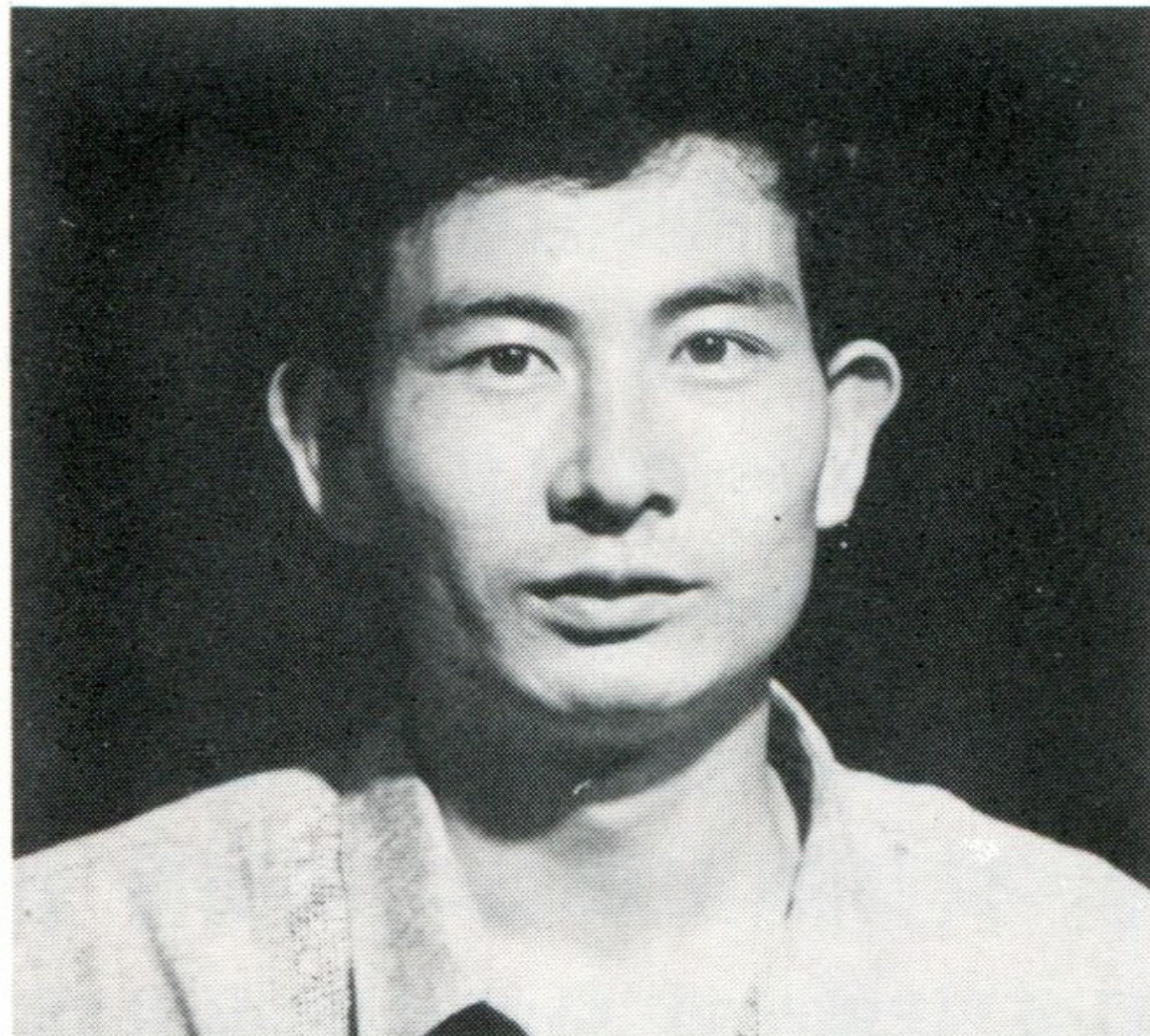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분단을 탄식하면서도 민족통일의 논리를 활발하게 전개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남북대화가 아닌 남북대결의 양상을 보여왔으며, 이런 삼엄한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론은 이데올로기적 논의, 국제역학관계의 논의, 정치, 군사, 정보의 전문가들만의 논의인 것처럼 국한시켜오고 있다. 사실상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당면성은 이처럼 폐쇄적으로 전문가와 통치담당 엘리트만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비공개적인 것으로 시인할 수만은 없는 그 차원이전의 아주 절박한 우리민족의 생존 그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만 한다.

참고서적 :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계간 「사상」 91. 봄호
한길역사 강좌1, 한국민족
운동의 이념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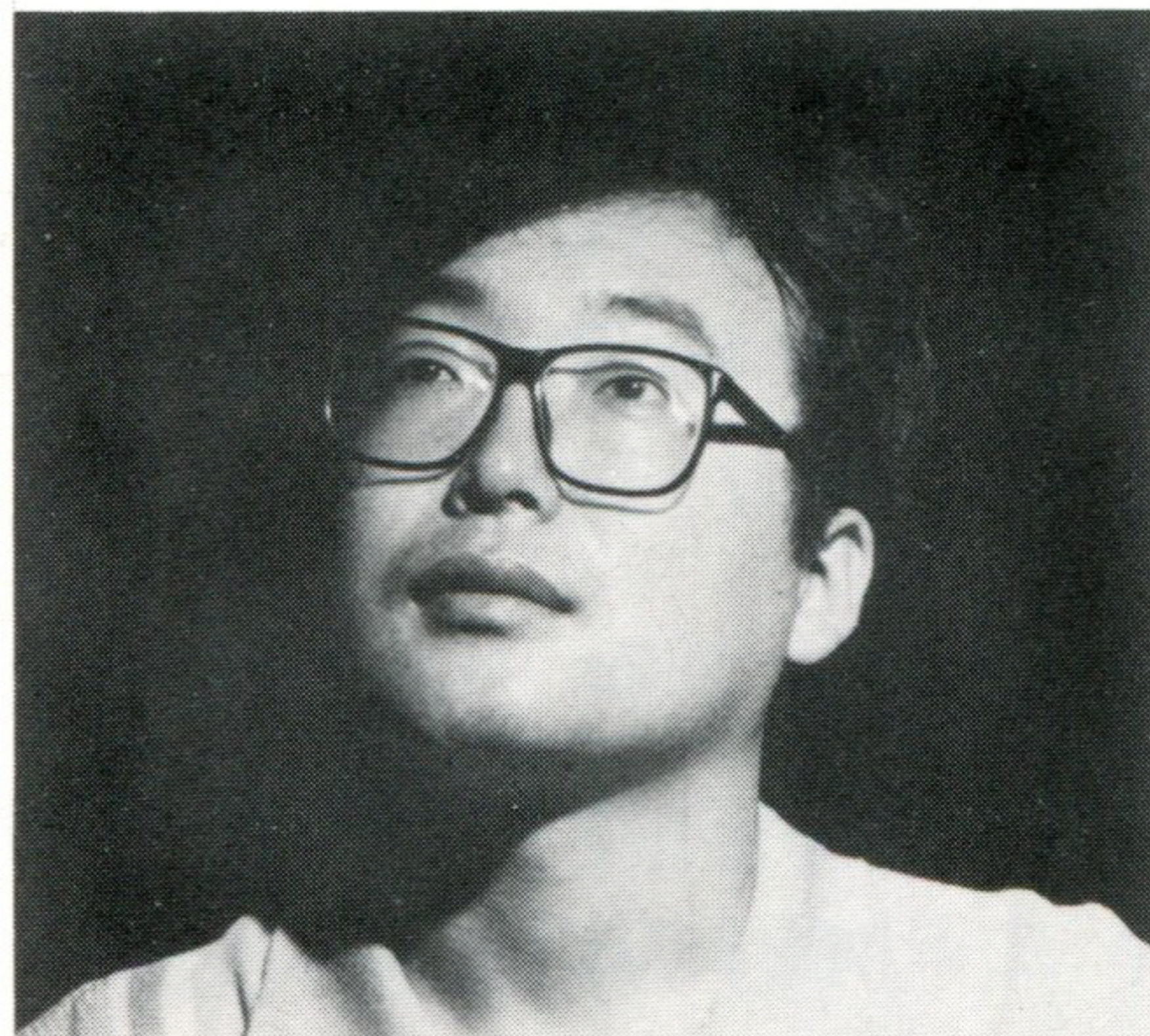
나·오·는·사·람·들



배우 1 / 강 현 중



배우 2 / 신 명 식



배우 3 / 황 석 원

무대 뒤편의

조금 있으면 나갈 차례이다.
오늘따라 연출의 요구와
배우의 적용은 대립적이다.
더 이상의 자상한 설명은
힘든 듯한 연출, 그의 어조는
사뭇 짜증스럽다.

막판에 가 보라우
가(?)* 눈시깔에 뭐 보이는 거
있을 줄 아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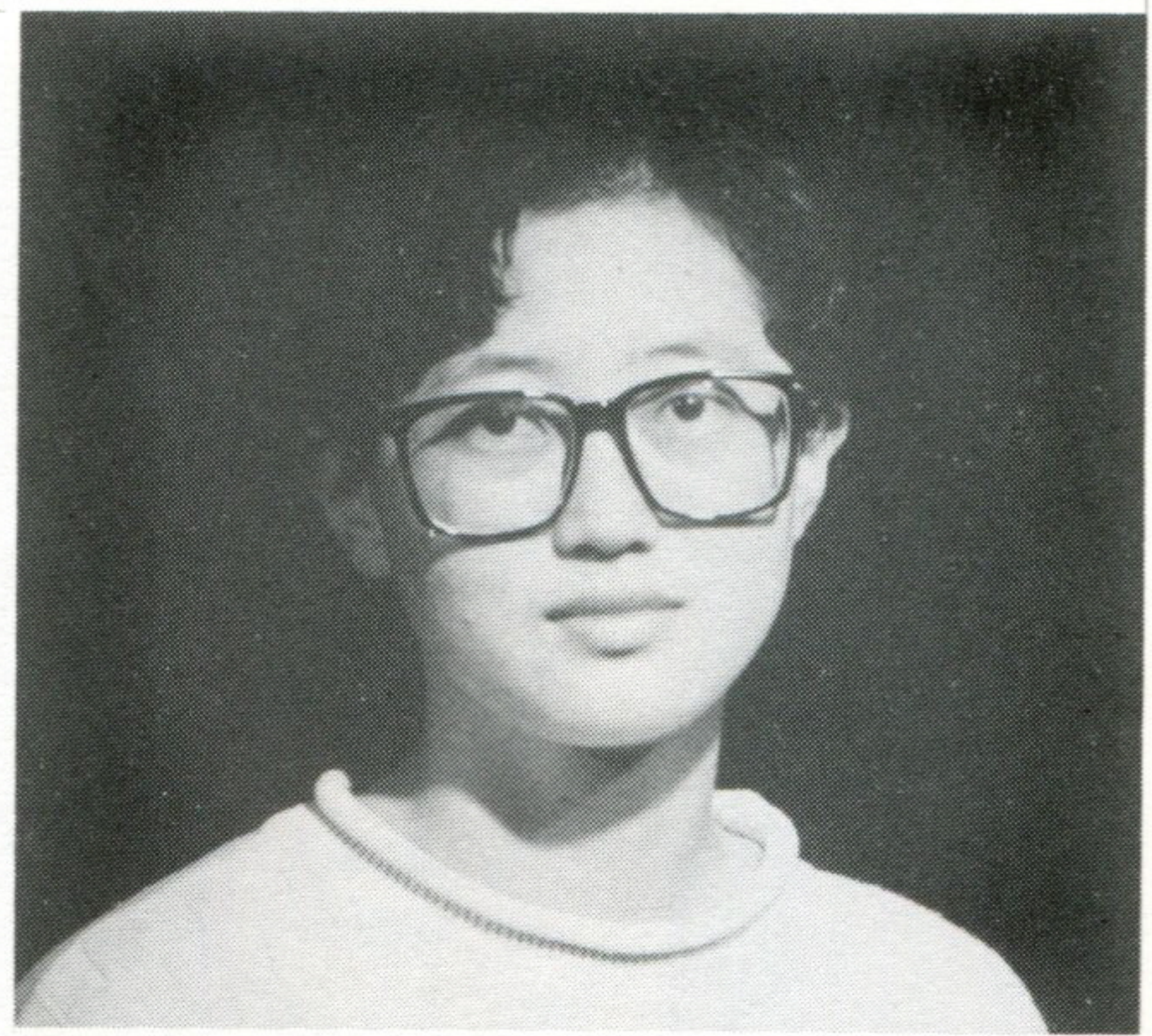
기다림 속에서

권 남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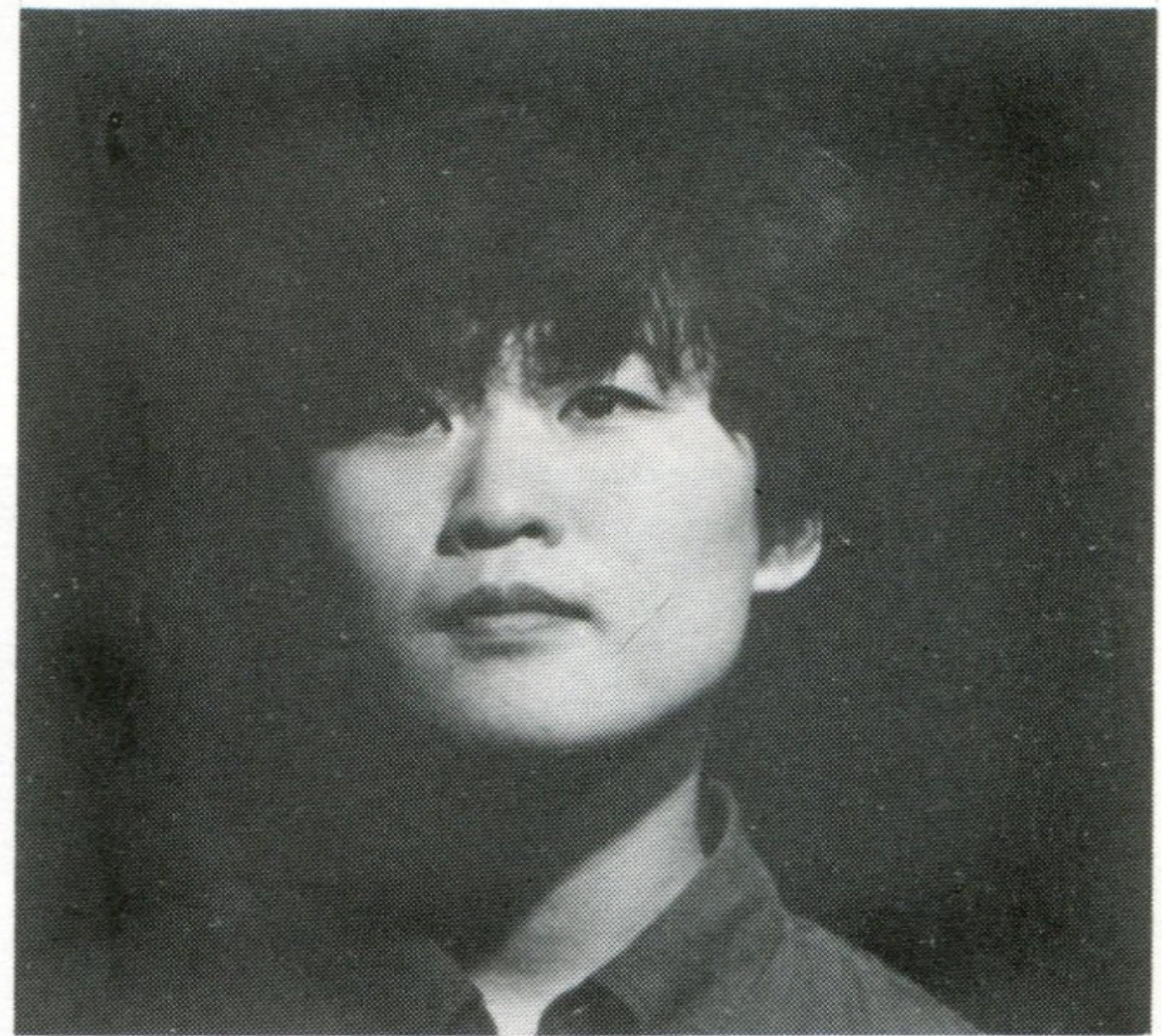
반쯤은 웃음을 섞어
나즉이 인용한 대사지만
어둠 속의 호흡은
점차 긴장, 긴장, 긴장.....

열정만으로도 얘기가 안되는 순간,
그러나 걸 수 있는 건
무대 위에서의 최대치일 것이므로
빠적지근한 다리를 굽혔다 펴며
소곤소곤 되받아 본다.

무대에 서 보라우
눈망울에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좋아, 됐어' 만나오면.....아네?



배우 4 / 이 남 희



배우 5 / 백 주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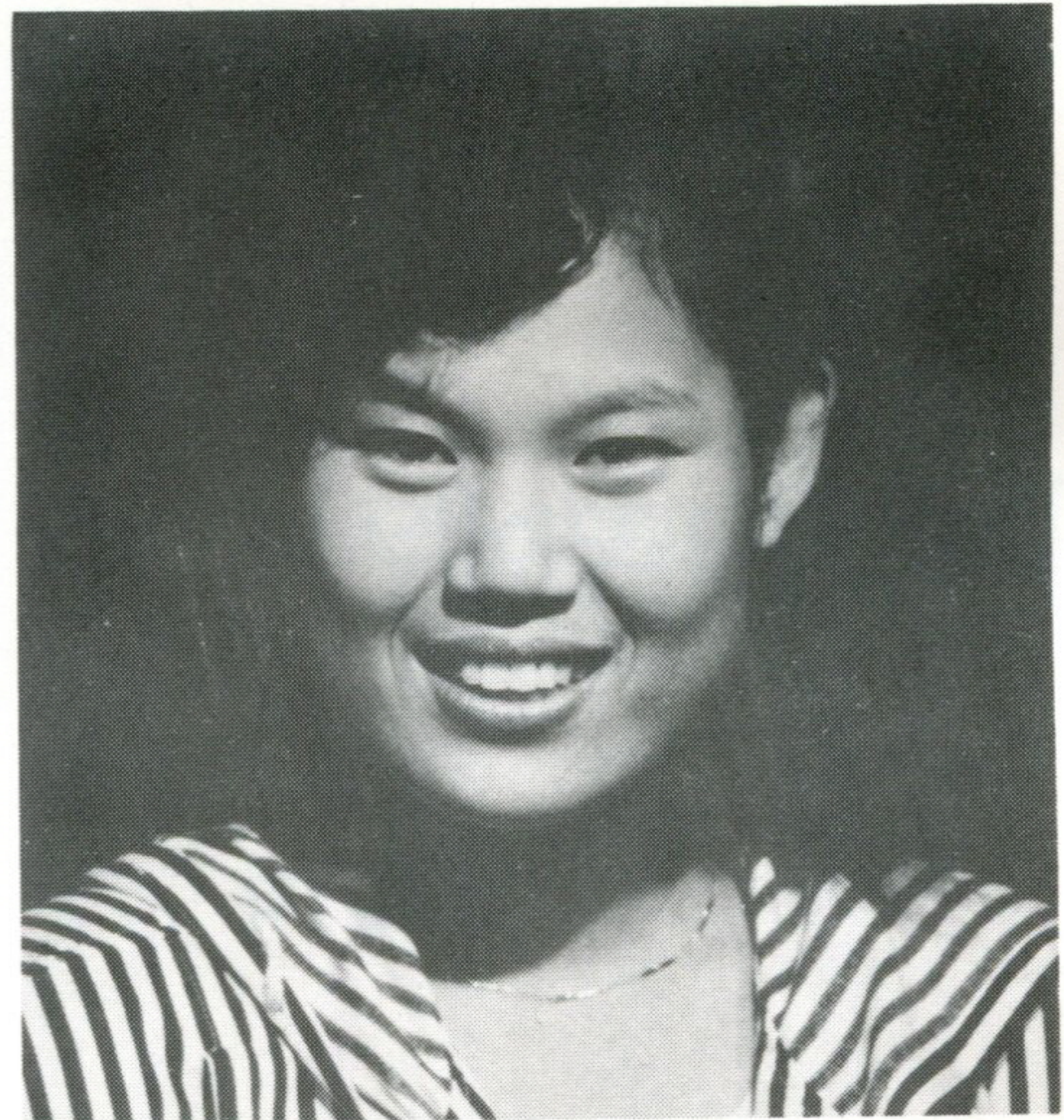
배우 6 / 권 남 희

만·든·사·람·들

기획/권 남 희



무대감독 / 허 종



조명 / 류 윤 숙



음향 / 박 미 정



무대장치 / 최 현 주

• 사진촬영 이 희 섭

흑백사진기획 · 실기 · 이론상담
☎ (051) 552-5112, (0523) 385-8750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591번지

사진작업실





소품 / 박 영 하



의상 / 원 윤 희

공·연·보

열린 무대 공연 1
'금강 1894' '90.3.2~3.5 신동엽
시, 이여화 구성, 이창복 연출로
시민회관소극장에서 창단 공연
함.

열린 무대 공연 2
'금강 1894' '90. 4. 30~5. 6 열
린소극장 개관기념 특별 공연
함

열린 무대 공연 3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90. 9.
20~10.28 이창복·권남희 작,
이창복 연출로 열린소극장에서
제2회 정기공연함

열린 무대 공연 4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90. 12.
11~12.16 열린소극장에서 제1
회 소극장 축제에 참가 공연함

열린 무대 공연 5
'들소' '91. 4. 11~4. 28 이문열
작, 권남희 연출로 열린소극장
에서 제3회 정기공연함.

열린 무대 공연 6
'한씨연대기' '91. 9.26~10. 13
황석영 작, 이창복 연출로 열린
소극장에서 제4회 정기공연함